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내 주인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19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모든 걸 지켜보고 관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뭐 지킬 게 있느냐?" 이러죠. "지키는 놈은 어떤 거냐?" 이래요, 또. 그러는데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 맡겨 놓으면, 맡기는 놈도 그놈이요 지키는 놈도 그놈이다 이겁니다.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감응이 되고 실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닥쳐오면 갖다 놓고 또 하다 보면 체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하나 쌓아서 탑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럭하다 보면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일상생활 하면서도 열반경지에…

질문 우리 일반 재가 불자들은 스님들처럼 수행 정진하지 못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견성을 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그렇듯이 댁에서 겪어 봐야, 실천해 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다 낳기는 하되 애가 어른 노릇을 못 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 정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린애도 생산을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나, 즉 정신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이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모든 거를 또 놓고 들어가야죠. 내가 탄생한 후에도 이 체험하는 것을 또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둘 아닌 도리를 또 알게 되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서 그땐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열반경지에 든다' 이럴 때는 둘 아닌 도리에서 둘 아니게 화해서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 원하더라도 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육신 속의 모든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이것을 도리천에 이르르고 구경경지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그냥 말없이도 할 수 있고 말없이 알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견성도 못 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그냥 뭐, 무불통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없다' 하고 '끄달리지 않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 하는 거는, 아주 그, 들어가서 없다는 건 사실인데, 아래에 있든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떼어 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쁜 거지, 그리고 나는 세 가지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에 유의 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 무의 법을 가르치고 세 번째, 유와 무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주좌와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그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 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겨우 입사했는데 상사 때문에…

질문 저는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다 일 년 전에 겨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저의 직장 상사에 마음이 끄달려 괴롭습니다. 사실 그분이 너무 행동도 거칠고 말도 험해서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업무적으로 부딪치다 보니 억지로 참고는 있으나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답변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저놈!' 하고 엉클어 쥐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저놈!' 하고 엉클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쪽에서 나쁜 말을 해 왔더라도 '아이, 내가 있는 탓이지. 소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있을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볐지.' 그러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듭니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려지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벌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의 가설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쪽에서도,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남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보게, 내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괜히 자네보고 이렇게 나쁜 언행을 했는데 참 미안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더 절친해진답니다. 어느 집에서도 자식이 나가서 그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부모한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기에 내가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 당신 주인공의 스위치를 눌러도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거고 그 아들의 주인공에다 맡겨 놔도 당신까지 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버지는 벌어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앨 쓰고 있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 후로는 "얘,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 몸인들 지탱하겠니?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 주고 웃으면서 과일도 깎아 주고 밥도 차려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하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머니, 이렇게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인제 내일부터 일찍 들어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모습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착해졌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고 '아휴!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지고 가겠지. 바로 그 길밖엔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을 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로 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을 해 보고 실험을 해 봐야 체험이 되지, 내 말만 듣고 무효로 돌린다면 그건 또 무효죠. 그러니 내가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사랑하고 가르치라 이거죠. 그리고 당겨 주고 실천을 같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 어떤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근본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 맡겨 놓고 '어휴,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이끌어가겠지.
> 바로 그 길밖엔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해 줄 때에
> 그 사람은 올바로 가게 됩니다.

배신감에 용서가 안 돼요

질문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가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답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 몇천 년 몇만 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 살기를 왜 남한테 그렇게 거북한 생각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를 다 벗어나서 평온하게 사셔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내, 내가 죽어서 태어날 때 또 그게 붙는단 말입니다. 아주 졸졸이 졸졸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업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의 그 정자 난자를 받아서 그 본인의 영혼이 들어가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데 그 영혼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업식도 마저 거기 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 하나 받는데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도 다 거기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몸속에 다 짊어지고 나와요. 아주 이 집에다 잔뜩 넣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이 업식들도 그냥 같이 자라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넣어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깐 차를 잘 부숴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넣어 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니다. 이 생명의 근본도 둘이 아니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 다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운전수에다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증오심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맡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해 줬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그냥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요, 댁의 마음과 아주 또 저거 해서 나중엔 사과를 해요. 이렇게 더 절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근본, 자기 운전수를 믿고 거기다 맡기는 걸 공부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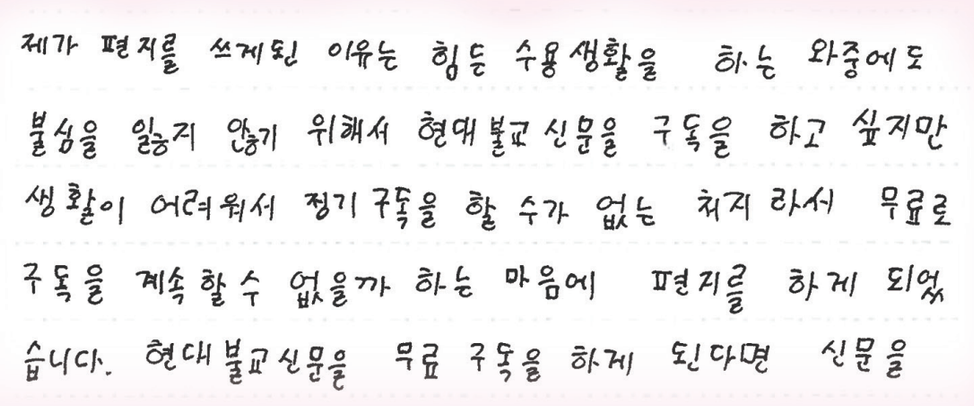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